



『三國遺事』 塔像편 연구

- 〈禱千手大悲歌〉 이해를 위한 전제로

A Study on Tapsangpyeon(塔像篇) in Samagukyusa(三國遺事) : Presupposition for Understanding of 〈Docheonsudaebiga(禱千手觀音歌)〉

저자 (Authors)	박인희 Park In-hee
출처 (Source)	한국학연구 28 , 2008.06, 205-226 (22 pag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8 , 2008.06, 205-226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57122
APA Style	박인희 (2008). 『三國遺事』 塔像편 연구. 한국학연구, 28, 205-22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8 11:0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塔像편 연구

-〈禱千手大悲歌〉 이해를 위한 전제로-

박인희*

〈국문초록〉

『삼국유사』 탑상편은 불교 조형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단순히 모아놓은 편목이 아니다. 탑상편 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탑상편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임을 알 수 있었다.

『삼국유사』 탑상편에서 불교 조형물은 불교와 이 땅의 인연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또한 부처님과 중생이 인연을 맺게 됨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존재하게 되고, 중생에게 처한 문제를 영험으로써 해결해 준다.

‘분황사천수대비매이득안’조에서 천수관음상은 불교와 중생이 인연을 맺고, 인연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천수관음의 영험이 뒤따르고 중생이 처한 문제가 극복된다. <도천수대비가>는 중생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하게 되며, 천수관음과 인연 맺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럼으로써 천수관음과 중생이 인연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물로서의 기능도 한다.

결국 탑상편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이며, 불교 조형물은 인연의 증거물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이야기의

* 안양대학교(고전시가 전공)

숨은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인연, 연기, 증거물, 탐상, 삼국유사, 분황사천수대비땀아득안, 도천수대비가

1. 서론

『삼국유사』 탐상편에 ‘분황사천수대비땀아득안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눈 먼 아이가 분황사 천수관음상의 앞에서 향가 <도천수대비가>를 지어 부르자 눈이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분황사조나 <도천수대비가>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야기의 내용이 분명하고, 향가 역시 해석상 문제²⁾가 될 만큼 난해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황사’조와 <도천수대비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탐상이라는 篇目을 고려한다면 천수관음상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도천수대비가>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탐상편은 그 이름만으로 본다면 탐과 불상을 다룬 편목이어야 한다. 하지만 탐상편에서는 탐과 불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鍾이나 佛殿, 사찰 등도 대상이며, 眞身舍利나,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 부처님이 현신한 곳, 미륵불의 환생까지도 대상이다. 따라서 천수관음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황사’조는 탐상편에 적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탐상편은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목의 명

-
- 1) 탐상편이 불교 조형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하 ‘분황사’조로 약칭하기로 한다.
 - 2) <도천수대비가>의 해독에 대한 논란거리는 아래 논문에 잘 언급되어 있다.
申載弘(1999), 「鄉歌 難解句의 再解釋(6)-禱千手大悲歌-」, 『韓國詩歌研究』 5, 韓國詩歌學會, 57~58면.
 - 3) 탐상편이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형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미륵선화미시량진자사’조에서 다루는 것은 미륵불의 현신으

칭이 ‘탐상’으로 명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편목에도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의 이야기가 있으므로 단순히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대상으로 했기에 ‘탐상’이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탐상편의 일부 이야기들은 다른 편목에 속한 이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찾아볼 수도 있다.⁴⁾ 그렇다면 ‘탐상’은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편목과 구별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

‘분황사’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분황사’조는 너무나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다루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눈 먼 아이가 노래(향가)를 부름으로써 눈을 뗐다는 것도 『삼국유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異蹟으로 ‘분황사’조만의 특징으로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천수관음상보다도 <도천수대비가>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니까지 한다. 하지만 ‘분황사’조가 탐상편에 존재하는 한 탐상편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도천수대비가>는 탐상편 이야기 속에 포함된 노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탐상편을 탐상편답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황사’조를 이해할 때 <도천수대비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2. 탐상편의 이해

탐상편에 실린 이야기의 수를 다른 편목들에 실린 이야기의 수와 비교

로 볼 수 있는 미시량이라는 인물이다. 이를 볼 때 탐상편은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탐상이라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4) 대표적인 것이 감통편에 속한 ‘광덕엄장’조와 탐상편의 ‘남백월이성노힐부득달달박박’조이다. 이 두 이야기는 서사구조에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이편의 ‘처용랑망해사’조도 사찰 연기 설화로 손색이 없다.
- 5) 李基白은 탐상편이 중국의 『고승전』의 感通편이나 遺身편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탐상편을 따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탐상편은 탐상편만의 성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李基白(1987), 『三國遺事의 篇目構成』,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編纂委員會, 東國大學校出版部, 985~986면.

해 보면 유독 그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야기의 수가 많아서 불교 조형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탑상편에 전부 모아 놓은 것처럼 생각 되기도 한다. 그런데 달리 보면 탑상편에 속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다른 편목에 비해 탑상편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중요하기에 다른 편목보다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려 한 것일 수 있다. 이는 편목의 순서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탑상편은 『삼국유사』에서 흥법편에 이어 나온다. 흥법편은 삼국의 불교[法]가 어떻게 일어나게[興] 되었는지를 다룬 편목이다. 불교가 삼국에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중흥의 길을 걸거나 쇠퇴의 길을 걷게 만든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편목이라 할 수 있다. 탑상편은 흥법편 바로 다음에 소개되고 있다. 만약 탑상편이 다른 편목에 포함시키기 애매하지만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해서 ‘탑상’이라는 편목을 만들었다면 이를 흥법편 바로 다음에 둘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탑상편 다음 편목이 의해편이기 때문이다. 의해편은 부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널리 퍼트린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묶어 놓은 편목⁷⁾이다. 탑상편이 흥법편보다는 뒤에 위치하고 의해편보다 앞선다는 것은 불교 신앙의 관점에서 흥법편 보다는 못해도 의해편보다 탑상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부처의 가르침을 퍼트린 인물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로 묶일 수 있었기에 탑상편으로 명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탑상편에 실린 이야기들이 대체로 불탑과 불상의 조성이유와 禮拜 내지 靈驗에 관한 기사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탑상편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

6) 三國의 諸王들과 관련된 紀異편을 제외하면 塔像편의 이야기 수가 30개로 가장 많다. 興法편 7, 義解편 14, 神呪편 3, 感通편 10, 避隱편 10, 孝善편 5이다.

7) 박인희(2007), 「『義解』로 풀이본 良志使錫과 <風謠>」, 『古詩歌研究』 20, 韓國古詩歌文學會, 245~252면.

8) 문명대(1988),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한국미술사연구소, 9면.

리 한다. 李基白은 塔像편이 불교 조형물의 기적적인 靈驗을 알림으로써 불교 신앙의 위대한 힘을 일반인에게 깨닫게 하려는 목적⁹⁾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문명대는 塔像이 파괴된 현장을 둘러본 一然스님이 寺刹의 新改創이 시급하다는 것과 塔像功德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여 유사的重要 篇目으로 넣었다¹⁰⁾고 보았다. 金杜珍은 탑이나 불상을 통해 불교신앙의 권장하려는 의도¹¹⁾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李基白이나 金杜珍의 견해는 표현은 다르지만 불교 신앙에 초점이 놓였고, 문명대의 견해는 당시 一然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불교 신앙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탑상편을 불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만 보면 다른 편목¹²⁾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도 불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탑상편을 이해하려면 탑상편만의 성격을 찾아내야만 한다.

다른 편목들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탑상의 출현에 관심을 둔 洪潤植이나 李相起의 논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洪潤植¹³⁾은 塔像편 이야기를 海岸漂着形式, 天上降臨形式, 地中出現形式, 修道形의 네 가지로 나누었고, 李相起¹⁴⁾는 海岸漂着型, 天上降臨型, 地下出現型, 其他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불교 조형물이 생기게 된 내력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탑상편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내력에 관한 이야기로 묶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묘사장육’조처럼 생기게 된 내력은 다른 책(『양지법사전』)에 미루고 비용과 재료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 본고의 대상인 ‘분황사’조처럼 내력이 전혀 없는 이야

-
- 9) 李基白(1987), 『三國遺事 塔像編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52면.
 10) 문명대, 위의 논문, 10면.
 11) 金杜珍(2000), 『三國遺事의 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 23,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1면.
 12) 王曆편과 紀異편을 제외한 다른 편목을 의미한다. 王曆편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紀異편은 그 성격이 정치적이란 점에서 제외하였다.
 13) 洪潤植(1980), 『三國遺事와 塔像』, 『佛敎學報』 1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30~134면.
 14) 李相起(1990), 『三國遺事 所載 塔像篇 說話研究』, 『論文集』 27, 淸州教育大學, 99~103면.

기들도 있다. 내력이 탑상편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도 상당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단서는 되리라 보인다.

1) 불가사의한 조형물

탑상편을 이해하는데 내력을 다룬 이야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내력을 다룬 이야기 중 몇몇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땅 속에 묻힌 불상이나 불탑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高麗靈塔寺 - 此下有八面七級石塔 堀之果然 因立精舍
 四佛寺堀佛寺萬佛寺 - 至山下聞地中有唱佛聲 命堀之 得大石 四面刻
 四方佛 因創寺
 生義寺石彌勒 - 至其洞堀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洛山二大聖觀音正越調信 - 與其子尋所遊橋下 水中有一石佛 / 歸撥蟹
 峴所埋兒塚 乃石彌勒也

이 이야기들은 땅 속에 묻혔던 불상이나 불탑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땅 속에서 묻혀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묻히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땅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묻은 것이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묻힌 것을 의미한다. 만약 누가 묻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정에 의해 묻힌 것도 아닌데 땅 속에 불상이나 불탑이 존재한다는 것은 異蹟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물은 또 있다. 땅 속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땅 속에 묻혀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四佛寺掘佛寺萬佛寺 - 忽有一大石 四面方丈 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
之 自天墜其山頂 玉聞之命駕瞻敬 遂創寺嵩側

비행체로부터나 다른 높은 곳에서 누가 무엇을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행 수단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 석가여래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왕이 그 바위를 직접 보고 바위 곁에 절을 짓게 하였다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땅 속이나 하늘에서 불상이나 불탑이 나타나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일은 아니더라도 불가사의한 일은 또 있다. 즉,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하지만 당대의 기술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한 일도 있다.

皇龍寺丈六 - 以大建育六年甲午三月 鑄成丈六尊像 一鼓而就 重三萬
五千七斤 入黃金一萬一百九十八分 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 黃金
一萬一百三十六分 安於黃龍寺

黃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 - 鑄黃龍寺鐘 長一丈丈三寸 厚九寸 入
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 鑄芬皇寺藥師銅像 重三十萬六
千七百斤 /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 欲鑄巨鐘一口

靈妙寺丈六 - 丈六改金 租二萬三千七百碩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무게가 21톤이며 두 보살상은 7.2톤이며, 황룡사의 종은 더 대단해서 무게가 약 299톤이나 된다. 분황사 약사불은 약 184톤이 들었고, 봉덕사의 종은 72톤이나 들었다. 또한 영묘사 장육존상을 금으로 다시 칠하는데 든 비용 23,700석은 약 4,273m²에 달하는 분량이니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상이나 종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재료의 양이나 수리비용을 보면 그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이라면 규모가 크더라도 제작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과거라면 사정이 다르다.¹⁵⁾ 하지만 제작을 했으므로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을 異蹟으로만 이해한다면 탐상편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의 불가사의한 일은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나마 단서를 제공한다.

迦葉佛宴坐石 - 新羅月城東 龍宮南 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即前佛時伽藍之墟也 今黃龍寺之地 卽七伽藍之一也
遼東城育王塔 - 前漢有之 彼名蒲圖王本作休屠王 祭天人 因生信 起木塔七重 後佛法始至 具至始末

황룡사에 있던 연좌석이 迦葉佛¹⁶⁾의 연좌석이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동성의 탐 역시 阿育王¹⁷⁾이 세웠다는 이야기로 이 땅에 불교가 이미 들어온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섭불이나 아육왕이 이 땅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던 불가사의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증거물인 연좌석이나 육왕탑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증거물일 수밖에 없다.

가장 앞선 시대의 증거물인 연좌석이나 육왕탑의 존재를 사실로 믿는다면¹⁸⁾ 다른 이야기들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 연좌석이 가섭불의 연좌석이 맞고 육왕탑이 아육왕이 세운 것이라면, 이 땅에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들어왔던 것이 된다. 들

-
- 15) 현존하는 봉덕사 종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그 소리를 재현해낼 수 없다고 하니 당시의 기술을 무작정 폄하할 것만은 아니다. 다만 현대도 규모가 큰 불상이나 종을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작업임을 고려한다면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능케 했으니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라 볼 수 있다.
 - 16) 迦葉佛은 과거 七佛 중 六佛로 석가모니가 출세하기 전 인간의 수명이 2만세였을 때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약 200만 년 전의 부처이다. (www.211.46.71.249 고려대장경연구소 용어사전 참조)
 - 17) 阿育王은 중인도 마가다국의 왕 이름으로 재위연도는 대략 기원전 269~232년으로 추정한다. 불법에 귀의하여 8만 4천기의 불탑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www.211.46.71.249 고려대장경연구소 용어사전 참조)
 - 18) 특히 ‘迦葉佛宴坐石’조와 ‘遼東城育王塔’조가 탐상편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점은 이 땅이 불국토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탐상편을 이해하기 바라는 一然의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어왔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혔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땅 속에 존재하는 불상이나 불탑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묻혔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에 의해 묻히거나 자연적으로 묻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묻혔던 것이 다시금 이 땅에 그 존재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가사의한 증거물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가섭불연좌석’조와 ‘요동성육왕탑’조의 이야기를 사실로 보면, 이 땅은 불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이미 불국토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땅 속에 묻혔던 불가사의한 증거물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상의 경우나 거대한 규모의 불상제작이 가능했던 경우는 해결이 안 되지만 불가사의한 증거물의 존재는 이 땅이 불국토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이 탑상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2) 부처를 닮은 자연형상

불가사의한 증거물로 이 땅이 불국토임을 보여주려 한 것처럼 이 땅이 불국토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있다. 이 증거물은 탑상편의 다른 이야기들의 소재와 다르다. 다른 이야기들이 대개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인데 비해 이들은 자연이 그 대상이다.

魚山佛影 - 山中奇異之迹 與北天竺訶羅國佛影事 符同者有三 一山之側近地梁州界玉池 亦毒龍所蝨 是也 二有時自江邊雲氣始出 來到山頂 雲中有音樂之聲 是也 三影之西北有盤石 常貯水不絕 云是佛流濯袈裟之地是也

臺山五萬眞身¹⁹⁾ -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 貞觀十

19) ‘臺山五萬眞身’조와 ‘溟州五臺山寶毗徒太子傳記’조, ‘臺山月精寺五類聖衆’조는 그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강원도 오대산의 부처상과 관련된 이야기임으로 같은 것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年丙申入唐 …(중략)… 汝本國良方溟州界有五臺山 一萬文殊常住在彼 汝往見之

‘어산불영’조는 만어산에 있던 나찰녀와 근처 독룡이 조화를 부려 재해가 있었는데 부처를 청해 설법을 함으로써 재앙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북천축 가라국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한다. 가라국의 이야기에서는 부처가 재앙이 재발할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영상을 바위에 남겨두었다고 한다. 만어산에서도 역시 부처의 모습이 발견되며, 이는 부처님이 북천축국에 당신의 모습을 남겨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당신의 모습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대산오만진신’조는 자장법사가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기 위해 중국에 오대산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 땅의 오대산에서 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보천과 효명 두 태자도 동쪽 만월산에서 1만의 관음보살 진신을, 남쪽 기린산에서 팔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의 지장보살을, 서쪽 장령산에서 무량수여래를 우두머리로 하는 1만의 대세지보살 진신을, 북쪽 상왕산에서 석가여래를 우두머리로 하는 5백의 대아라한을, 중앙의 풍로산에서 비로자라불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의 문수보살을 보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역시 부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서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어산에서나 오대산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의 근원은 모두 다른 나라의 경우였다. ‘어산불영’조(만어산)는 고려의 승려 寶林이 언급한 북천축 가라국의 이야기와 비슷하며, 『觀佛三昧經』의 야건가라국의 이야기와, 『高僧傳』의 북천축 월지국의 이야기와, 『西域記』의 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거론된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축의 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어산의 경우도 천축의 이야기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며, 만어산에서도 천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천축과 만어산의 경우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 땅에 부처가 상주하심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산오만진신’조(오대산)의 경우 자장 법사가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중국을 찾아갔다는 내용이다. 자장 법사가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기 위해 중국에 갔던 것을 보면 문수보살의 진신은 원래 중국 오대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장은 문수보살의 현신을 통해 오히려 강원도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비롯한 오만보살의 진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장 법사가 본 오만보살의 진신은 보천·효명 두 태자에 계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는 문수보살의 진신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이 땅이 부처가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불가사의한 증거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어산의 모습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 그 결과로 만어사가 세워져 있다. 또한 오대산에는 오만진신의 모습을 보았던 자장 법사가 기거했던 정암사가 있고, 보천 태자가 유언한 결과로서 五方に 사찰이 세워져 있다. 이는 만어산의 부처님의 모습이나 오대산의 오만진신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인공적인 조형물과 달리 이 땅의 자연 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서려 있다고 믿음으로써 이 땅이 불국토임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불국토로서의 인연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의 증거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탑상편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皇龍寺丈六 - 願到有緣國土 / 蓋威緣使然也

前後所藏舍利 - 而別造小舡 載佛牙泛於大海 任隨緣流伯 于時適有本朝使者至宋 聞其事 以天花茸五十領 紵布三百疋 行賂於押舡內

史 密授佛牙

輿輪寺壁畫普賢 - 帝釋降于寺之左經樓 留旬日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 抑有緣于茲土 故比比示現焉

이 기록들의 핵심은 ‘인연’이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황룡사 장육존상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인연이 있었기에 때마침 宋에 갔던 고려의 사신이 佛牙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며, 인연이 있었기에 제석신이나 미륵불이 현신하였던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기에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여도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불상이나 탑, 사찰이 생기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땅 속에 묻힌 것이 드러나거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과거로부터 맺어진 인연 때문이다. 당시의 과학기술로 만들기 어려운 불상이나 종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의 연좌석이나 탑은 당연히 과거에 맺은 인연의 결과이며, 자연물에서 발견되는 부처의 모습도 인연의 결과인 셈이다.

인연이 있으면 그 어떤 방해물도 소용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즉 그렇게 되려고 예정되어 있고, 그대로 실현된다.

金官城婆娑石塔 - 初公主承二親之名 娑海將指東 阻波神之怒 不克而還 白父曰 父王命載茲塔 乃獲而涉

허 왕후가 부모의 명을 받고 떠났지만 사실은 상제의 명²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배가 거센 파도로 인해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은 상제의 명보다도 더 강한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다. 탑을 싣고 떠나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바로 탑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다. 탑이 허 왕후의 길을 막았던 것은 바로 탑과 이 땅으로 와야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탑과 이

20)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조에 의하면 허 왕후의 부모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 수로왕과의 결혼을 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땅의 인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때 납득할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의 힘은 상제의 명까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어쩔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이 인연의 힘이 바로 이 땅에서 불교 조형물을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인연과 관련된 다른 표현을 탐상편 몇몇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天龍寺 - 境地異常助道之場

靈藏寺彌陀殿 - 乃息心樂道之靈境也 / 意謂此地必佛法所住也

靈鷲寺 - 公見之惻然有感 卜問此地 云可立寺

불도를 돕는 곳이라거나, 불법이 머무를 곳이라거나, 사찰이 설 만한 곳이어서인지 이곳들에는 모두 사찰이 생겼다. 왜 불도를 돕거나, 불법이 머무르거나, 사찰이 설 만한 곳인지 합리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과 인연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로 사찰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탐상편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불교 조형물의 내력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그 결과 탐상편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았다. 인연이 있기에 이 땅에 불교 조형물이 생기게 되었고, 불교 조형물의 존재를 통해 부처님의 자취가 곳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탐상편은 불교와 이 땅의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인 셈이다.

3. 탐상을 통한 인연과 연기

1) 인연의 증거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불경에 사용된 것을 통해 보면 인연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23가지의 의미²¹⁾로까지

해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상을 깨뜨리는 인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연,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올 듯하다. 내가 일부러 맺으려 한 것도 아니고 맺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닌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불연(佛緣)’ 때문’²²⁾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어서이다. 그런데 인연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연으로 인해 어떤 일이 시작될 수도 있고, 인연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인연은 緣起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연기란 “因緣하여 일어나는 것”이란 의미를 갖는 말로,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 일어나는 것, 즉 “~에 緣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²³⁾한다고 한다. 그런데 탐상편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불교 조형물이 인연하여 일어난[연기] 결과로 존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내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절이 생겼다. 불상을 얻어 절을 짓고 안치했다. 불상이나 종을 완성했다.’ 등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탐상편에는 불교 조형물이 결과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몇 편 볼 수 있다. ‘삼소관음중생사’,²⁴⁾ ‘백룡사’, ‘민장사’, ‘분황사’²⁵⁾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에서 불교 조형물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게다가 이 이야기들은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21) 吉祥 編(2001), 『佛敎大辭典』, 弘法院, 2116~2117면.

22) 윤예영(2007), 『『삼국유사』 『탐상』편의 메타서사 읽기 -신성 공간의 불락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314면.

23) 이종희(2005), 「불교 緣起說과 輪回說에 관한 小考」, 『韓國宗敎史研究』 13, 韓國宗敎史學會, 110면.

24) ‘삼소관음중생사’ 조는 관음상이 생기게 된 내력으로 구성된 전반부와 관음상의 영험을 보여주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후반부의 경우도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인물과 상황이 다른 뿐 관음상의 영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와 약간 차이가 있다. 이하 ‘중생사’로 약칭하기로 한다.

25) ‘분황사’ 조는 본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4. ‘분황사’ 조와 <도천수대비가>’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표 1〉 세 이야기의 비교

		중생사	백률사	민장사
대상		관음보살	관음보살	관음보살
인물		최은함(父) 최승로(子)	부레랑의 부모 부레랑	가난한 여자 보개(母) 장춘(子)
문제상황		전쟁	납치	실종
대응	방식	불상에 맡김	불상에 기도	불상에 기도
	주체	부	부모	모
결과		아이가 무사함	무사귀환	무사귀환

이 세 편에서는 인물들이 바라던 바가 관음보살상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관음신앙을 다룬 이야기로 이해된다. 이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한 행적을 중심으로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자식의 생사를 관음보살에게 의지한 것은 인연의 시작, 인연을 맺음을 의미한다. 관음보살상에 의지하는 것은 ‘緣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자식이 무사한 것은 그 결과이다. 이 과정에 관음보살의 영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음보살은 이미 존재하던 바였고, 부모가 관음보살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험보다는 인연의 맺음, 인연의 일어남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식의 생명이 무사한 것은 분명히 관음보살의 영험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은 인연이다. 관음보살과 인연이 없었더라면 영험함은 있을 수 없었다. 내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에서 인연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처럼 영험을 다룬 이야기들에서도 역시 인연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인연을 다루는 이들 이야기에서 불교 조형물은 인연의 증거물이 되고 있다. 부처님과 이 땅의 인연을 입증할 수 있는 사찰이나, 불상, 불탑, 종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연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또한 자식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식의 생사를 관음보살에게 의지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보여주려면 관음

보살상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탑상편은 다른 편목과 구별될 수 있다.

결국 탑상편 이야기들에서 다루어진 불교 조형물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인 셈이며, 탑상편은 인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편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법편에서 불법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었다면 탑상편에서 불교 조형물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이 땅, 부처님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인연을 보여주었다.

2) ‘분황사’조와 <도천수대비가>

‘분황사’조는 이야기가 짧고 단순해서 문제시될 부분은 없다. 다만 앞선 세 이야기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첫째는 앞선 세 이야기에서는 전쟁이나 실종, 납치의 상황이어서 아이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지만 ‘분황사’조는 생사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앞선 세 이야기에서는 관음보살에게 기도만을 했는데 ‘분황사’조에서는 향가까지 지어 불렀다는 점이다. 셋째는 앞선 세 이야기에서 부모가 기도를 했는데 ‘분황사’조에서는 아이가 기도를 했다는 점이다.

〈표 2〉 분황사와 세 이야기의 비교

		분황사	세 이야기	비교
대상		천수관음	○	
인물		희명(母) 아이(子)	○	
문제상황		눈이 멀게 됨	×	세 이야기는 자식의 생사가 문제이지만 ‘분황사’의 경우는 자식의 장애가 문제
대응	방식	불상에 기도 향가	△	분황사의 경우 향가가 추가
	주체	아이	×	세 이야기는 부모가 기도한 데 비해 분황사는 아이가 기도함
결과		아이가 눈을 뜸	○	상황이 극복된다는 점에서 동일

‘분황사’조와 세 이야기의 차이점은 문제상황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이야기의 문제상황은 자식의 생사였고, ‘분황사’조의 경우는 자식의 신체 장애였다. 그런데 이를 인물과의 관계로 확대시키면 문제상황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진 상태이고, ‘분황사’조는 동거 상태이다. 즉, 세 이야기는 자식과 헤어진 상태에서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고, ‘분황사’조는 자식과 함께 살면서 자식에게 신체 장애가 생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결국 대응의 방식이나 주체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자식과 헤어진 상태에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부모가 할 수밖에 없다. 부레랑은 납치되었고, 부개는 실종되어 관음보살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승로는 갓난아이여서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이야기에서 대응의 주체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식과 동거하는 상태이라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부모와 자식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황사’조에서 희명은 눈이 먼 아이에게 직접 노래를 부르게 시켰고 기도도 시켰다. 아이는 직접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나이였고, 천수관음 앞에 직접 나설 수 있었다.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마땅한 법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부모를 거쳐 극복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응 방식의 차이는 상황의 심각성에 기인한다. 생사 문제나 신체 장애 문제는 모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하지만 신체 장애 문제와 생사 문제를 비교하면 생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신체 장애 문제는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사 문제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체 장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과 살아있는데 살면서 불편한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황사’조에서는 향가 <도천수대비가>가 덧붙여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향가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은 『삼국유사』 감통편 ‘월명사도솔가’조에 언급된 것처럼 ‘천지와 귀신을 감동’²⁶⁾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

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향기를 지어 부른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목숨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못 견디낼 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기에 스스로는 절박했을 것이고, 그래서 목숨이 걸린 사람보다 더 노력하기 위해 노래를 지어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황사’조 속에서 <도천수대비가>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천수관음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인연의 맺음이고 인연의 맺음과 동시에 영험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절박해 보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천수대비가>가 필요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도천수대비가>를 부름으로써 인연의 맺음을 확고히 하려 했을 것이고, 인연의 맺음이 분명할수록 문제는 극복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도천수대비가>의 존재는 천수관음이 계신 분황사라는 사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사찰은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면서 건립되기 시작했다. 불교가 공인된 이후 대부분의 사찰은 덧집에 塑像을 모신 소형사찰이었으며, 민가가 그대로 사찰이 된 경우였다고 한다.²⁷⁾ 민장사의 경우는 敏藏 角干이 자기 집을 내놓아 만들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개인 주택 규모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중생사나 백률사는 그런 기록조차 없어 규모를 짐작할 수 없다. 『삼국사기』에도 세 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중요한 사찰이거나 큰 규모는 아니었으리라 추정된다. 반면 분황사는 『삼국사기』에 선덕여왕 3년 완공되었다는 기록²⁸⁾이 있으며, 『삼국유사』 흥법편 ‘아도기라’조에 의하면 도읍에 가람을 세울 만한 일곱²⁹⁾ 곳 중의 하나이며, 그곳은 前佛 때의 가람터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분황사는 대형사찰이어서 국가에서 경제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준성이 어려웠을 것으로까지 추정하고 있다.³⁰⁾ 이런 정황을 미루어

26) 『三國遺事』, 感通第七, 月明師兜率歌,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27) 李仁哲(1999), 「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新羅文化宣揚會, 4~5면.

28)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五, 善德王, 三年 改元仁平 芬皇寺成.

29) 興輪寺, 永興寺, 皇龍寺, 芬皇寺, 靈妙寺, 天王寺, 公嚴寺를 말한다.

불 때 분황사가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분황사가 前佛 때의 가람터였다면 이는 분황사 자체가 인연의 증거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분황사에 존재하는 천수관음이라면 중생들과의 인연이 존재해야만 하고, 당연히 인연을 통한 영험도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인연이 존재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분황사라는 사찰의 위상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황사 천수관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신라인들이 천지귀신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향가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도천수대비가>를 통해 인연의 맺음과 그로 인한 영험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

‘삼소관음중생사’, ‘백불사’, ‘민장사’조가 관음보살과의 인연을 다루었던 것처럼 ‘분황사’조도 천수관음과의 인연을 다른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천수관음의 영험은 인연의 맺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사한 다른 이야기와 달리 ‘분황사’조에 존재하는 <도천수대비가>는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황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연의 맺음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삼국유사』 탐상편은 불교의 조형물을 다뤘다는 점에서 다른 편목에 비해 공통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편목이었다. 하지만 이 공통점 외에 탐상편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잘 부각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탐상편은 불교 조형물을 다루었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고는 드러나지 않았던 탐상편의 본질을 찾고, 그에 맞춰 탐상편에 수록된 ‘분황사천수대

30) 李仁哲, 위의 논문, 2면.

비맹아득안'조를 이해하였다. 또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도천수대비가>도 탑상편의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살펴보았다.

탑상편은 불교 조형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만 같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혹은 연기)을 보여주는 편목이었다. 불교 조형물은 불교와 이 땅이, 혹은 중생이 인연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로서 탑상편 이야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불교 조형물이 있으므로 해서 인연을 믿을 수 있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조 역시 인연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탑상편 다른 이야기들에서 불교 조형물은 불교와 이 땅이 인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그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반면 이 이야기에서 천수관음상은 불교와 중생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시작함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천수관음상의 영험이 뒤따르고 중생이 처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극복된다. 탑상편에는 세 편의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처한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이 이야기에서는 향가 <도천수대비가>가 덧붙게 된다. <도천수대비가>는 처한 상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수관음과 인연 맺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천수관음과 중생이 인연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물로 그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탑상편은 불교의 전래[興法]와 불교 교리의 풀이[義解] 사이에 불교와 이 땅의, 또는 부처님과 중생의 因緣을 보여주는 편목이었다. 따라서 탑상편의 이야기는 불교 조형물과 관련된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불교와 인연 맺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조와 <도천수대비가>의 이해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吉祥 編(2001), 『佛敎大辭典』, 弘法院, 2116~2117면.

金杜珍(2000), 「三國遺事의 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 23,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26면.

문명대(1988),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敎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한국미술사연구소, 3~15면.

박인희(2007), 「‘義解’로 풀어본 良志使錫과 <風謠>」, 『古詩歌研究』 20, 韓國古詩歌文學會, 243~267면.

申載弘(1999), 「鄉歌 難解句의 再解釋(6) - 禱千手大悲歌-」, 『韓國詩歌研究』 5, 韓國詩歌學會, 57~82면.

윤예영(2007), 「『삼국유사』 「탑상」편의 메타서사 읽기 -신성 공간의 몰락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93~320면.

李基白(1987), 「三國遺事의 篇目構成」,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編纂委員會, 東國大學校出版部, 981~994면.

李基白(1987), 「三國遺事 塔像編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51~163면.

李相起(1990), 「三國遺事 所載 塔像篇 說話研究」, 『論文集』 27, 淸州教育大學, 95~124면.

李仁哲(1999), 「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의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新羅文化宣揚會, 1~29면.

이중희(2005), 「불교 緣起說과 輪回說에 관한 小考」, 『韓國宗敎史研究』 13, 韓國宗敎史學會, 108~145면.

洪潤植(1980), 「三國遺事와 塔像」, 『佛敎學報』 1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29~150면.

www.211.46.71.249 고려대장경연구소 용어사전.

Abstract

A Study on Tapsangpyeon(塔像篇) in Samagukyusa(三國遺事) -Presupposition for Understanding of <Docheonsudaebiga(禱千手觀音歌)-

Park, In-hee

This study was prepared in order to solve three questions. First, what is a topic of Tapsangpyeon(塔像篇, a part of the Pagoda and a Buddhist image) in *Samgukyusa*(三國遺事)? Second, is 'Bunhwangsa-Cheonsudaebi-Mmaengadeukan(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a proper story for Tapsangpyeon? Third, how does <Docheonsudaebiga(禱千手大悲歌)> function amid a story?

As a result of discuss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t is what Tapsangpyeon is addressing Hetu-pratyaya(因緣) in Buddhism. Second, it is a point that 'Bunhwangsacheonsudaebimaengadeukan(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is a story of having addressed the result of Hetu-pratyaya and Pratitya-samutpada between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and a blind child. Third, it is a point that <Docheonsudaebiga(禱千手觀音歌)> functions as the evidence of Hetu-pratyaya in the middle of a story.

Key words : Hetu-pratyaya(因緣), Pratitya-samutpada(緣起), Evidence, Tapsang(塔像), Samgukyusa(三國遺事), Bunhwangsa-Cheonsudaebi-Maengadeukan(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Docheonsudaebiga(禱千手觀音歌)

소속 기관: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전자 우편: dalalbakkak@paran.com

| 투고일 2008. 4. 30 | 심사완료일 2008. 5. 23 | 게재결정일 2008. 6. 3